

젊은 언어로 다시 태어난 동양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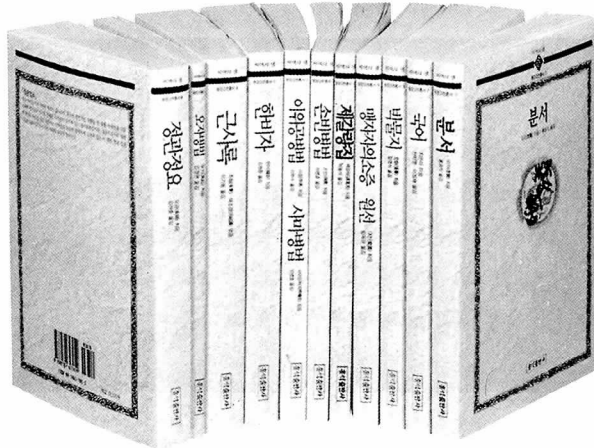
홍익출판사 <동양고전총서> 시리즈 11권 출간

태워버려야 할 《분서》(홍승직 옮김)가 홍익출판사(대표 이승용) <동양고전총서> 시리즈(전50권)의 열한번째 작품으로 빛을 보았다. 명나라 말기에 사상계를 풍미했던 이지(李贄)는 평생 저술한 4권의 책 가운데 한 권을 태워야 할 책이라는 뜻을 실어 《분서》라 이름붙였다. 이지가 친구와 제자·논객과 주고받은 서간과 시문, 그리고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론을 담은 글모음이다. 당대 학자들의 속내 깊숙이 박혀 있는 병폐를 까발리는 글들이 많아 실제 이 책은 금서로 지목됐다. 유학·불교·노장사상에 대한 그의 일관된 비판적 논지는 '인간으로서의 자신(己)의 길(道)'이다.

국내 첫 완역 고전도 많아

홍익출판사는 <동양고전총서> 시리즈를 전50권으로 기획, 먼저 10권을 선보였다. 춘추전국시대부터 명청시대에 이르기까지 당대 철학과 사상, 이론을 체계적으로 담은 고전을 두루 망라했다. 30~40대 소장학자들이 한글세대에 맞게 옮겼고, 대부분 국내 처음 완역 소개되는 작품이라 동양고전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춘추전국시대의 고전 중에 첫책으로 나온 《손빈법법》(이병호 옮김)을 비롯해



《한비자》(김원중 옮김), 오기의 《오자방법》(김경현 옮김), 자자 미상의 역사책 《국어》(신지영·이정재 옮김) 등이 있다. 손빈의 후손 손빈이 실전경험을 토대로 쓴 병법서 《손빈법법》은 2천3백년만에 발견된 고전으로, 나라의 존망이 걸린 전쟁을 좀더 적극적으로 평가하려는 당시 정치관을 엿볼 수 있다. 또 《한비자》는 허위적인 유가를 반대하고 현실적인 법가사상을 집대성한 대표작으로 꼽힌다. 그의 사상 속에는 법가사상뿐만 아니라 춘추전국시대의 갖가지 사상적 성과가 집약돼 있다. 또 법가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오기의 《오자방법》은 전쟁 이전의 준비태세와 군신관계 등을 중시하여 서로 보완적 관계를 기술하고 있다. 중국 역사의 여

명기를 그린 최초의 역사책으로 꼽힌 《국어》는 나라의 중대 사안이나 정책에 서로의 주장을 주고받으면서 그 결과 나라가 흥성과 멸망을 거듭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나라 사이의 외교관계까지 살핀 명저로 꼽힌다.

위진 남북조 시대를 배경으로 태어난 고전으로는 《박물지》(김영식 옮김)와 《제갈량집》(박동석 옮김)이 있다. 진나라 장화가 지은 《박물지》는 지리와 산수·풍물·종족 등을 10권 38항목으로 나뉜 세계의 사물을 상세히 기술한 책. 기이한 땅의 기이한 사물과 옛날의 다양한 기록·신화·전설, 그리고 약학·의학·지리학 등 과학기술자료를 실어 위진시대가 예술·문학·과학이 꽃피던 시기임을 역설하고 있다. 제갈량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제갈량집》은 정치가·군사전략가로 눈부시게 활동하던 그의 면모를 조목조목 살피고 있다.

《이위공병법/사마병법》(이현수/이병호 옮김)과 《정관정요》(김원중 옮김)는 수·당시대의 고전. 《이위공병법/사마병법》은 당을 건국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태종 이세민과 명장 이정의 병법 토론집이다. 《정관정요》는 당태종과 그를 보좌한 명신들이 나눈 정치적 견해와 치국관이 담겨 있어 당태종의 면모와 목숨을 걸고 직간하는 신하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읽을 수 있다.

송·원시대의 고전으로 주희와 여조겸이 저술한 《근사록》(이기동 옮김)은 훈고학에 매몰된 이전시대의 유학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학을 형성한 초기 성리학자의 사상을 담고 있다. 성리학의 독특한 우주관과 윤리학·공부론·경학관, 도교와 불교 등 이단에 대한 비판 등이 주제별로 담겨 있다.

대진의 《맹자자의소증》(임옥균 옮김)은 명청시대의 고전으로 꼽힌다. 수백년 이어온 주자학적 지배질서에 반기를 든 대진의 비판적 사색이 주요 내용으로, 유학의 중심개념인 주자학은 물론 당시의 통치이념을 맹렬히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오완진 기자

파인 김동환 2차 자료 총망라

《파인 김동환 문학연구》(전30권)

1925년부터 1998년 사이에 문인·학자·문학도들이 작가 파인 김동환(1901~1958?)과 그의 작품에 대해 쓴 글·전기·가족관계자료 등이 30권이라는 방대한 분량으로 출간됐다. 《파인 김동환 문학연구》(전30권)를 엮은 김영식씨(한국고회사문헌연구원 이사)는 김동환의 셋째아들로 이미 《아버지 파인 김동환》, 《파인 김동환 전집》(전5권), 《삼천리 영인본》(전32권)을 출간한 적이 있어 이로써 김동환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문헌은 정리된 셈이다.

수록된 자료는 모두 7백10편으로 시문, 작

품해설 등 문학평론이 80편, 연구논문이 47편, 참고문헌이 3백64편, 가족관계자료가 1백71편이다. 문학평론편에는 평론, 작품해설, 감상을, 연구논문 편에는 본제 또는 부제가 김동환과 그의 작품에 관한 것에 한해 학회지, 논문집의 논문, 학위논문을, 참고문헌편에는 일부 단편이나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는 글을 수록했다.

수록한 내용은 모두 원문을 영인해 그 원전을 밝혔다. 해방전에 발표된 희귀자료를



발굴했으며 가족관계자료와 화보를 통해 기간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도 다수 수록했다. 또한 가곡, 가요화된 김동환의 시 작품 일람과 조선총독부 경무국에 남은 기록까지 수록해 특정 작가와 작품에 대한 문학연구로는 한국문학사상 초유의 방대한 자료 묶음으로 평가받는다.

파인 김동환은 1901년 태어나 1924년 양

주동의 추천으로 《금성》에 '적성을 손가락질하며'로 등단했다. 그는 초기에 우리 근대문학 최초의 장편서사시 《국경의 밤》과 《북청 물장수》, 《산너머 남쪽에는》, 《봄이 오면》 등과 같은 민요풍의 시를 쓴 민족주의 시인으로 명성을 드날렸으나, 한편 일제 말기에는 자신이 직접 경영하던 잡지 《삼천리》를 통해 부일 협력에 앞장서 그 명예에 흠집을 남기기도 했다.

파인을 일컬어 "끈기 있는 일꾼"이라 평한 벽초 홍명희의 평가가 떠오르는 이 전집은 1백질 한정판매출 예정이다(353-0772). 작품연보 중 원문 미발견본에 대해서는 계속 자료수집해 보완 증보할 예정이다.

— 김연수 기자

논문자료사/B5/본문 12000면 화보 152면/전질250만원